TV조선 성형 메이크오버 쇼
<아름다운 당신3>에 대한 의견서

TV조선은 지난 5월 20일 '힐링 뷰티 쇼'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아름다운 당신> 시즌3의 방송을 종료했습니다.[1] 해당 프로그램은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로 신청자의 외모가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형 메이크오버 쇼 입니다. 신청자는 방송에 등장하는 '힐링닥터스'의 계획에 따라,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 치과 치료, 체중감량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실생활에서 외모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보여주고, 성형수술을 통해 그 어려움이 극복되었다는 듯 말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5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외 6개 단체는 대표적인 성형 메이크오버 쇼인 tvN <렛미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5000여명이 참여한 폐지 서명 제출 등을 포함한 제작 반대 운동을 진행하였고[2], <렛미인> 제작사는 제작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권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대세남>, <아름다운당신>처럼, <렛미인>과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방송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당신>은 벌써 세 번째 시즌이 제작 및 방송된 상태입니다. 이는 과도한 미용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렛미인>을 비롯한 성형 메이크오버 쇼가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은 <렛미인>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병원 협찬, 과도한 미용 성형수술, 비포 & 애프터 비교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은 외모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로 직결된다는, 성형만능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새로운 시즌 제작 중단을 요구합니다.

1. 협찬을 통한 병원광고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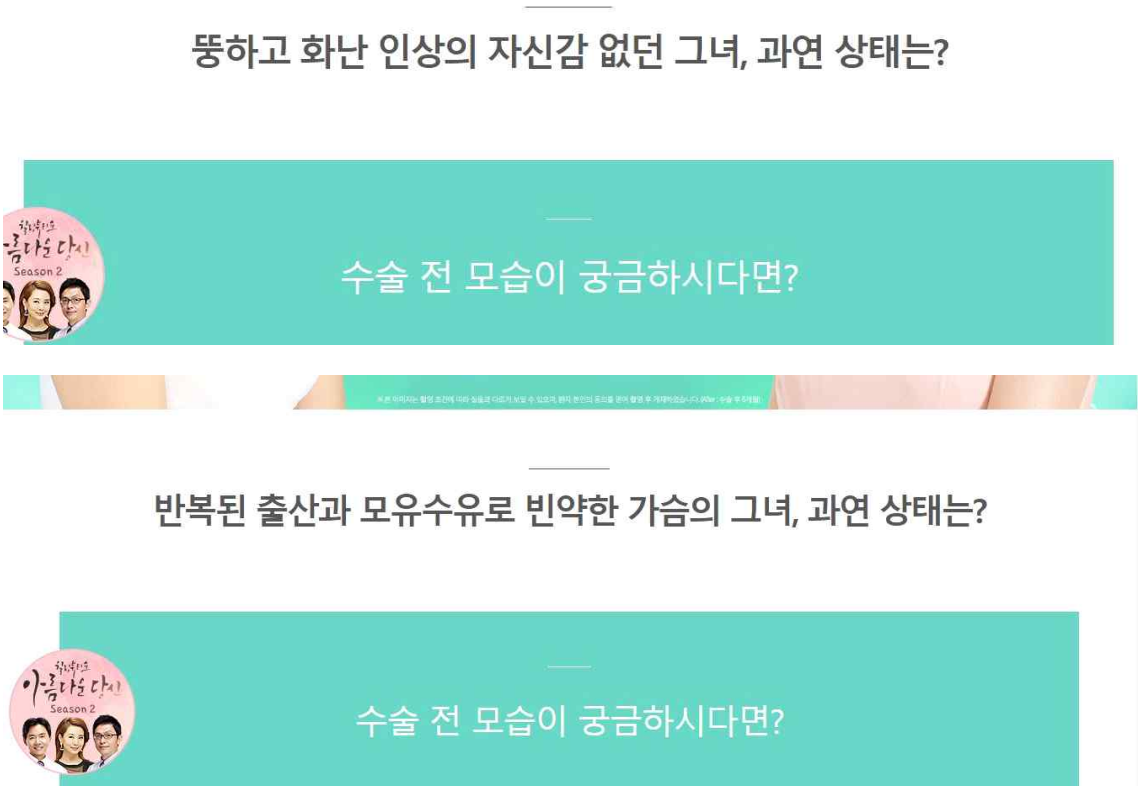
1)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아름다운 당신>에서는 방송 중 병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

---

1) 2017년 3월 18일 시즌3 시작, 5월 20일 종료. 총 방송횟수 10회, 출연자 22명.
2) PD저널, "여성단체들,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2015년 9월 4일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67

출연하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에서는 신청자의 사진과 프로그램 로고를 활용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방송 출연자의 성형 비포&애프터를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병원 이름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지만 의사의 이름 옆에 '원장' 등의 직책을 그대로 붙여, 사실상 병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에 따르면, "1.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을 광고하는 것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지1] <아름다운 당신>에 출연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 홈페이지 화면

2) 의료광고심의 규정 위반[3)]

포털사이트에 '아름다운 당신 출연 의사'로 검색하면 출연자가 수술을 한 병원에서 작

3) 한국여성민우회,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의료 광고 기사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서", 2015년 9월 25일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4252?category=%EC%97%AC%EC%84%B1%EA%B1%B4%EA%B0%95&keyword_search_all=true

성한 홍보글이 검색되며, ‘아름다운 당신’과 ‘성형외과‘로 검색 후 뉴스탭을 보면 방송에 출연했던 신청자의 사진과 함께, 해당 성형외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규정에 따르면, ‘신문.잡지.기타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등에 기사(記事)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할 수 없’고, ‘기사 중 의료인의 자문 등을 받았음을 표시할 때에는 자문 의료인의 전문과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소속 의료기관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기사가 광고 목적에 종속되면 의료소비자 및 일반 국민들을 현혹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의규정에는 ‘순수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광고가 아니’나, ‘의료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였을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 및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2] ‘아름다운 당신&성형외과’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2.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묘사와 표현

<아름다운 당신>에서는 신청자의 사연이 방송되는 동안, 화면 왼쪽 상단에 신청자를 “OO한 여자”라는 자막으로 지칭하는데, 이는 대부분 ‘살에 묻혀버린 여자’, ‘사랑받고 싶은 여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여자’ 등, 부정적인 수식어 입니다. 또한 신청자의 성형 전 외모에 대하여, ‘거미형 몸매, ET형 몸매’등, 결함이 있다는 듯 부각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도드라진 부분을 정리해 여성스러운 얼굴로 바꿔줄 계획’, ‘남성적인 이미지의 얼굴’, ‘강한 인상의 얼굴’과 같은 말들을 사용해서, 성형을 통해 외모를 바꾸는 것만이 ‘아름다운 당신’이 되는 방법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지3] TV조선 <아름다운 당신3> 17.05.06 8회 방송 화면 중
[이미지4] TV조선 <아름다운 당신3> 17.05.13 9회 방송 화면 중

[이미지5] TV조선 <아름다운 당신3> 17.05.06 8회 방송 화면 중

시즌 3의 8회에서는 '과거를 지우고 싶은 여자'라는 타이틀로, 오프닝 화면에서 신청자가 배우자의 외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재연'에 의한 연출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오프닝에서는 '재연'이라는 안내자막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3. 출연자의 BEFORE & AFTER 모습을 보여주는 문제

<아름다운 당신>에서는 신청자의 BEFORE & AFTER 모습을 보여주고, 수술 후 신체 사이즈를 수술 전과 비교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성형 전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메이크오버 과정에는 성형뿐만 아니라 의상, 화장, 조명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훨씬 아름다워졌다'는 점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또한 패널들은 '성형 전 모습이 우울하고 슬퍼 보인다'는 식의, 성형 전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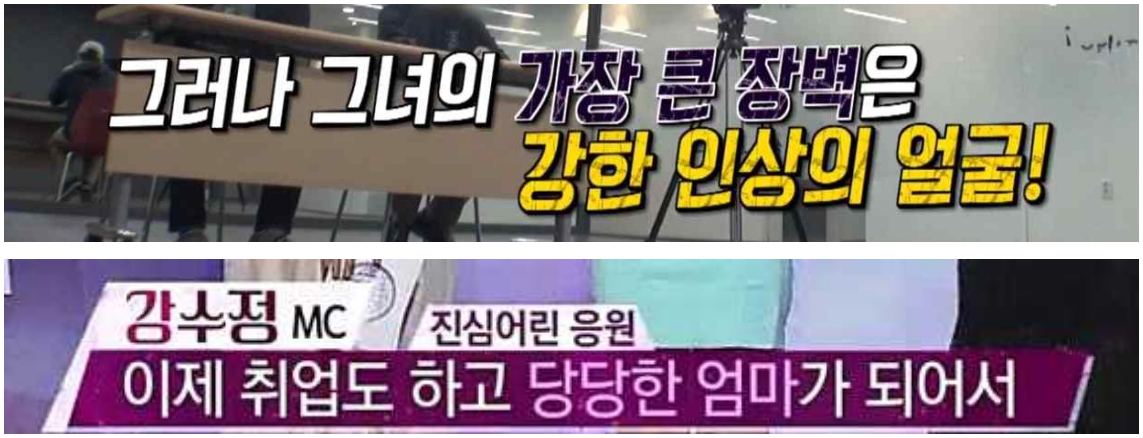
[이미지6] TV조선 <아름다운 당신3> 17.05.06 8회 방송 화면 중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는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은 성형수술을 통해 변화한 출연자의 외모를 보여주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들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출연자 주변의 문제가 성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입하는 문제

<아름다운당신>에서는 신청자가 겪고 있는 가정폭력 후유증, 가족들의 폭언, 생활고 등의 어려움이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가 변화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9화의 경우, 취직 및 귀화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전 남편 때문에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성형수술이라는 '솔루션'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힐링닥터스와 MC들은 '변신한 모습으로 아들도 만나고 취직과 귀화가 잘 해결되었으면 한

다'는 소망을 전하지만, 실제로 외모를 바꾸는 것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방송에서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미지7] TV조선 <아름다운 당신3> 17.05.13 9회 방송 화면 중

또 신청자에게 끊임없이 외모지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압박을 주는 가족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지만 그것을 '스스로 변할 수 있게 해준 가족들의 잔소리'로 포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신청자 개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개선책으로 성형을 통한 외모 변신이 제시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것입니다. 결국 신청자의 사연은 성형 메이크오버 쇼를 만들기 위해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